

뜻이 통한 자 (사무엘상 1:9-18)

한나의 이야기이다.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하신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신다. 말씀이 내용이고 말씀이 방법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한다. 성경의 성공적 인생을 산 모든 사람들이 전부다 그랬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가다가만 것이다. 말씀을 받아야 하고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하다.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말씀대로 된다. 신학에 보면 일반은 총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게 두면 살수 있게 만들어 놔다는 것이다. 일하면 돈 버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고 숨쉬면 숨이 쉬어지는 것이다. 밥먹으면 소화되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뛰다. 이것이 일반은총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는 것, 이것을 일반은총이라고 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특별한 인생이 된다. 누구나 다 사는 인생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세상과 나를 정복하게 된다. 내 인생에 놀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인생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응답 받는다. 말씀을 따라 살면 누구나 자기 인생을 정복한다. 누구나 그렇다. 잘 생각해보라. 말씀을 따라 살면 누구든지 자기 인생 정복한다. 방법 아주 확실하다.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성경에 자기 인생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고 환경을 정복한 사람들은 전부 말씀의 인생을 살았다. 말씀 따라 살면 돈 정복한다. 전부 돈에 놀려 있다. 건강 정복한다. 다른 사람은 이런 저주에서 건져줄수 있다. 그리스도 누리고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간증을 한다.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것을 세가지로 정리했다. 이 삼직은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이 언약이 되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이 언약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 모였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와 내용이 있다. 핵심은 그 모든 것을 통해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과 세상에 성취되는 것이다. 그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구체적인 무기이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근본, 그리스도. 거기에 구체적인 말씀을 받으면 양손에 무기를 가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전쟁에 대해 준비가 된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 지는 법은 절대 없다. 그냥 하나 응답 받았다가 아니다. 그 응답을 잘 분석해보라. 그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그때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보인다. 그건 즉시 미래에 대한 답으로 바뀐다. 말씀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 한다. 인생은 간단하다. 이렇게 안 살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다. 이유는 하나 뿐이다. 오늘부터 결심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살면 간단해 지는가? 왜 간단하다고 하는가? 복잡한 세상? 예배 때 말씀을 받고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복잡한 기도제목이 많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필요 없고, 받은 말씀을 기도해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이것이 내 기도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것으로 고백하고 누리고 다시 언약으로 잡고, 이걸 지속하고 반복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정복해버린다. 문제 와도 상관 없다. 이것이 성경이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이다.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증인된다. 너 나 따라오면 내가 너의 인생을 저주에서 건져주겠다. 답 났으니까. 이것이 자기의 인생에서 체험되어 있는 자, 그 사람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가 모든 것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어떻게 기도가 모든 것이겠는가? 우리가 하는 기도를 생각해보라. 주세요라고 주로 한다. 틀린 기도 아니다. 그것가지고는 기도가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면 그 기도로는 응답이 지속되지 않는다. 한번씩 응답 온다. 그것만해도 감사하다. 그러나 기도가 모든 것이라고는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다. 그것이 진짜인가? 그것이 체험된 인생은 내가 너 따라오면 저주에서 건진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잡한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가? 첫째는 그리스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말씀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다. 내 인생을 저주에서 건지는 생명의 강단이다. 축복이 있기 바란다. 이렇게 살다 천국 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었다. 오늘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다.

1. 뜻이 통한 자

오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1-8절을 보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충분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는 아들이 없으면 여자는 맥을 못 चु는 것이다. 그런데 둘째 부인은 아들, 딸 다 낳았다. 그러면 문제는 자신인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응답 안되었다. 그러니까 갈등이 심했을 것이다. 그런데 둘째 부인은 남편의 사랑이 한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자꾸 자극을 하는 것이었다. 아이도 못 낳는게 무슨 여자냐 라는 식으로 했을 것이다. 그런 소리 듣고 그래도 분통이 터지면 터지지만 참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읽어 보면 이렇게 있다가 그 원통함이 극에 도달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한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그런데 그 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뭐냐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과 한나의 마음이 통한 것이다. 전예부터 알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다. 나실인, 이런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너무 원통하고, 분통이 터져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버린 것이다. 그 기도하는 중에 떠오른 단어가 바로 나실인이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평생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다. 말씀이 들어왔는데 문제가 기적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것이 말씀이다. 오늘도 말씀이 들어오면 눈이 열린다. 사람이 바뀌어 버린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니까.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응답이 바뀌고 결과가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늘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가만히 있는데 바뀐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니 까 그 순간 바뀐 것이다. 이 말씀이 한나에게 들어온 것이다. 그 자리에서 언약이 딱 되어 버린 것이다. 말씀이 들어오면 언약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한나의 인생에 답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와서 자기 인생에 언약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더 이상 슬픈 기색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아들 아직 안태어났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생기니 슬픔이 없어져버렸다. 평소에는 늘 걱정했다는 것이다. 자식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언약이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나? 기도하라는 것이다. 기도 안하는 것을 회개하고 내가 기도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내 평생의 언약이 되었다면 그 다음 날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한나는 그 순간 답이 나 버렸다. 그러니까 근심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아직 안 태어났다. 아들이 그래도 답 났다. 반드시 된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다. 걱정이 사라져버렸다. 1년 후에 태어날 것 아닌가? 1년간 이 언약을 누리고 기다리는 것이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 믿어서 그런가? 말씀이 들어와서. 그게 말씀이다. 바뀌지 않는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줘야 한다. 누구에게 누구의 믿음을

지켜주는가? 근본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말씀을 쫓아 가는 자, 내 생각을 쫓아가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누림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불안하다. 이 차이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란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할 그 때에도 한나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중에 간혹 평생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다. 안 바뀐다. 사단 공격할 것이다. 기도 끊어지지 않는다. 언약이 되어 있으니. 반드시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 언제 되든 관계 없다. 그러나 된다는 믿음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다. 아무도 못 막는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기도 안해도 괜찮다. 이게 받은 말씀이다. 받아야 안되겠나? 생명길로 기도해서 이걸 받아야 한다. 매주 지속적으로 받다가 평생의 말씀이 어느날 들어오는 것이다. 그 말씀 대로 되는 것이다. 성취하십시오. 정복하는 것이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삼상 2:21절에 보면 한나가 나중에 세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무엘과 합해서 아들 네명이다. 총 6명이다. 아들이 없을때에는 브닌나가 와서 약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브닌나가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한나는 말씀을 받고 그 시대의 최고의 아들을 낳았는데 뭐를 더 바라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브닌나가 상대가 되겠는가?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살렸겠지. 이것이 인생 정복이다. 어떻게 정복하는가? 응답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 응답도 지속되어야 한다. 어떻게 지속되는 응답을 받는가?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다. 하나님은 정복이라는 축복으로 여기서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이리로 가야 한다. 내 맘대로 안가진다. 사단이 막으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것이다. 이걸 죽여야 한다. 그래야 그 길로 갈 수가 있다. 최고의 축복이고, 시대의 축복이다.

사무엘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보고 한나는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놀라운 아들을 주시려고 그 시대에 아들을 안 주신것이구나.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 없었다. 삼상 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빼앗긴 땅을 다 회복하였다. 과거에 잘못된 것이 상처로 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판이고 축복이구나. 내가 아들이 있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나? 하나님이 이런 시대적인 아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이 없게 했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이것이 과거에서 해방이다. 정복이다. 과거를 발판으로 만드는 것이다. 무엇으로? 응답으로. 어떻게 응답?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원에 눈을 뜨는 것으로. 이것이 회복의 메시지이다. 이것이 뜻이 통한자의 인생 정복이다. 이것이 말씀의 권세이고 말씀을 받은 자의 권세이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다. 말씀 한마디가 이런 일을 한 것이다. 나실인 하나 딱 들어왔다. 우리도 한나처럼 시대적인 계획 안에 있는 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말씀을 받는 것이다. 항상 기도하고 예배에 오기를 바란다. 많은 말씀들이 세상에 있지만 항상 강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정확한 언약의 피제사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 회복의 역사의 중심에 한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근본 뜻은 미국에서 복음을 회복해라. 남미 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시대의 복음 안으로 부른 것 아니냐? 눈 열리고 들어오면 그 때부터 진짜 시작인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다.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이룬다.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한다. 다른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는 단 한 개도 없다. 해가 복음을 위해서 뜬다면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근본이라고 말한다. 이 언약 복음 안에서 말씀을 딱 받는 것이다. 이걸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러 오는 것이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타지역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2. 언약을 잡은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기도는 세상을 살린다. 성경에 많은 예를 기록하고 있다. 언약을 잡은 기도는 당연히 내 인생도 살아나게 한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도 살리고 정복한다. 다른 사람을 저주에서 건져줄수도 있다. 사단의 울무에서 해방도 시킬수 있다. 이 언약은 뱀의 머리를 깨게 되어 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을 받았다. 그래서 그 시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깨닫고 눈을 열게 된 것이다. 그 뜻이 한나를 통해서 역사한 것이다. 한나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눈을 뜬 그 때부터 진짜가 시작된 것이다. 당연히 그 언약은 이 한나에게 평생의 언약이 되었을 것이다. 당연히 기도의 중심이다. 한나에게는 그 이후로 기도한 이유가 첫 번째가 이 언약이었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다. 한나는 죽는 날까지 이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그 때가 가장 행복했을 것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한마디, 나실인이 한 여인의 평생 기도제목이 되었다. 그건 그의 인생 뿐 아니라 나라도 살렸다. 시대를 살리는 기적이었다. 당시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시대였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이 제사를 멸시했다. 바른 언약의 제사가 없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 그 어떤 문제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 시대의 근본문제 해결의 중심에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 복음을 말하지 않고 뭔가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 한다. 자꾸 사람 중심의 말을 한다. 그리고 자꾸 변명을 한다. 이런 시대로 자꾸 바뀌어 가는 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시대를 살릴 나실인을 부르고 그 나실인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부르신 것이다. 우리도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나는 희생만 하고 인생을 끝낸 사람이 아니다.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쳤다. 사도바울도 보면 고생 많았지만 그가 받은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 수많은 제자와 함께 시대를 뒤집어 버렸다. 새로운 문화도 하나 만들었다. 기독교 문화. 그 전에는 이런 개념도 없었다. 누가 이런 영향을 주겠는가? 로마를 정복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고생한 것 기뻐한다고 하였다. 천국의 상급으로 받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나와 같은 인생을 살것인가? 먼저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은 자, 받아들인자가 되어야 한다. 근본이다. 이것이 안되면 다음 단계가 진도 안 나간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것이 진짜 저주에서 해방이라는데 눈을 뜨면 복음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 한나는 어려운 중에 기도하다가 이 눈을 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 자꾸 불평할 일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이다. 그 소원이 내게 언약이 되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 되게 되어 있다. 그것이 평생 기도가 되고 항상 언약이 된다. 결과는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함으로 주위 사람들도 사는 것이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아무 문제가 안된다. 딱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저런 문제 있어도 괜찮다. 언약이면 된다는 답이 있다. 이런 인생이 언약 가진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다 이런 한나같은인생 되기 바란다.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 있으니. 이것을 지속하면 어느날 모든 문제 해결이 되게 되어 있다. 그 날 하나님의 이 시대의 뜻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이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